

#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건축법

## Society and Architectural Law that cares for Human

요즘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뭉땅 아픈 이야기뿐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들판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눈물 없이는 들 수 없는 기막힌 사연들, 치솟는 물가, 바다 이야기 등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실천은 참으로 다양하다. 수술환자에게 피한방울을 나눠 건강을 찾게 할 수도 있고,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나눌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진 지식,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깨뜨려 함께 나누는 어린이도 있다. 기업과 연예인 중에는 자기가 가진 1%의 재산과 끼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건축사들도 자신의 달란트를 통하여 아름답고 쓰기편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 건강을 잃고서 장애1급으로 한없는 좌절과 낙망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남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남은 생명, 남은 건강...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나 이 깨우침은 나를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게 하였고, 86년 12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활을 위해 무지개선교회를 설립하였다.

공동화장실, 공동수도, 편의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12평의 빈약한 무허가 건물에서 시작한 첫걸음은 열악한 시설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몸을 가누지 못해 흔들거리다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다.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 장애인사역 20년을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좋은 일에 함께해 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넘비현상으로 우리 주위 많은 장애인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지개재활원의 경우 보증금의 인상액을 채울 수 없어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 나는가하면, 근린상가건물을 임시거처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공사 진행도 못하고, 좁은 교육공간 안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생활하고 있다.

작년 초, 정부의 복권기금 등의 보조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이들을 위해 용인의 대지를 구입하였다. 1년 간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건축기금이 약간 모아졌기에 건축허가관계를 문의하자, 당해공무원은 장애인시설은 안된다고 하였다. 넘비현상을 피해 내대지들만 있는 곳을 구입하였고, 땅을 매입할 때도 구입사유를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땅주인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거절하는 것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라 분명한 사유를 기재한 것이 서류로 남아있기에 항의를 거듭하여 용도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허가와 준공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성남에 세운 예가원도 이웃의 눈길을 피하려고,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을 택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던가.

장애인들이 산속이나 변두리로 쫓겨 가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현주소이다.

이것은 내 집 근처로 오면 교육이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오해와 장애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멀리 있을 때는 도와야 하고 내 집 옆으로 오면 쌍수 들고 반대하는 사회,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들은 설자리가 없고, 혼자 움직일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공공시설들은 정상인 위주로 건축이 되어있다.

지금은 그나마 건축법 등이 바뀌어, 새로 건축하는 건물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서울의 거리는 젊은이들의 거리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는 쓰레기통에 들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거리는 젊은이들의 거리가 아닌 노약자의 거리요, 장애인의 거리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거리낌 없이 거닐고, 활동한다.

선진국이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며, 장애자나 노약자가 우선하는 사회이다.

필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15일 동안 우리 예기원의 정신지체아로 구성된 레인보우 두들소리 팀을 이끌고 미국 LA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아 난타공연을 다녀왔다.

그곳의 장애인 단체들과 교회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장애인들의 천국인 미국은 철저하게 장애인중심으로 노약자들의 중심으로 편의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 부시 행정부에서 사회복지의 기초를 이루는 두 가지 정치철학은 모두 성서에 바탕을 둔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compassion and inclusion' 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17절의 '하나님의 형상' 의 구절에서 추출한 목적적 가치관[자존감(self respect), 평등사상(equality), 평화(peace)]가 도구적 가치관[정직(honesty), 공감 하는 마음(compassion)], 또 존귀(dignity)와 평등(equality)의 가치관이다.

미국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하고 평등하다' 는 일반적 가치에 근거해서 모든 사회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1959년 당시 케네디대통령은 건축 장벽으로 인하여 다수 장애인의 고용이 저해되고 다수의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 이라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1968년에는 건축 장벽철폐법이 제정되고 1973년에는 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 조치가 취해졌다. 지금도 미국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건축물이 되도록 법적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성인절반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성인 800만 명이 풀타임으로 노동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렇듯 미국의 복지는 정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편의시설 설치를 법제화 하였다.

우리사회에 장애문제는 편의시설 설치나 복지서비스확대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러한 제도적 기초위에 미국과 같이 자원 봉사하는 사랑의 마음이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울어나야 한다. 사랑의 실천 안에서, 봉사의 손길 속에서, 진정한 복지사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인들이 사는 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집이었으면 한다. 건축사들이, 다른 건물보다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디자인해주길 소원한다. 그리하면 선진복지사회가 가시적으로 한발 성큼 다가오리라. ■